

욥기

모임 25: 욥기의 세계:

질서, 비밀서 및 무질서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25회 욥기의 세계 : 질서, 비밀서, 무질서입니다.

소개 [00:27-00:58]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이미 비밀서, 질서, 무질서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것을 조금 검토한 다음 그것이 욥기와 우리 신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

창조: 질서, 비밀서, 무질서 [00:58-3:48]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는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능하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와 틀림없이 우리 세계, 우리의 사고 방식에서 창조의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물건을 만들었지만 모든 것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질서 있는 체계에서

그의 통제하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료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 주문 과정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창세기 1장은 순서가 없는 2절에서 시작했는데,
원재료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할당받아야
하는 원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포장을 풀어야 하는 상자의 그림을
사용합니다. 정리가 필요한 방들. 이 비질서 역시 악이 아닙니다. 최종
형태로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중인 작업입니다.

주문 생성의 초기 작업은 전체 주문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바다는 질서가 없는 곳이다. 정원 밖은 정원 안과 같은
수준의 질서가 없었다. 이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검토하는 모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을 계속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신은 어떻게 해서든 전체 질서를 성취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어떻게든 그가 그렇게 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지혜로 그는 확장된 프로세스를 통해 작업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파트너십으로 이끄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타락 이전에도 사람들은 확립된
질서와 계속되는 비질서로 특징지어지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무질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언급했듯이 무질서는 악을 반영하며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 행해집니다. 악의 우주적 세력도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의 무질서는 주로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비질서가 지속되고 불행하게도 무질서가 지배하는 비질서를 지속함으로써 신이 확립한 질서로 특징지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기가 세상에 대해 말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 중 하나입니다.

보복 원칙 [3:48-5:06]

율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자연계에 주입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작동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보복 원칙을 우주의 기초로 채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타락한 세상입니다. 무질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 순서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상적인 활동은 하나님의 자연적인 성품이나 속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무질서 [5:06-7:39]

점차적으로 질서를 세우기로 결정한 것은 그의 지혜였습니다. 이제 그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우주에 비질서가 남아 있고 무질서가 침입하도록 허용된 영역을 설정했습니다

. 다시, 비와 홍수가 자동적으로 그분의 정의나 축복 또는 형벌의 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야훼 자신의 주장을 상기하십시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비가 내립니다. 자연 재해, 우리가 자연 재해라고 부르는 것, 허리케인, 쓰나미, 지진, 토네이도, 가뭄, 기근, 전염병, 전염병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수준의 파괴적인 경험 돌연변이 는 모두 세계의 비질서의 측면으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재해 중 일부가 실제로 더 큰 생태계와 우주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질서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질서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또 다른 표시일 뿐입니다 . 물론 우리가 부르는 이러한 자연 재해는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재적으로 그것들을 형벌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가 언제 형벌로 사용하는지 언제 사용하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도덕적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통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볼 때마다 판단에 사용되는 도구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지만, 어떤 집이 토네이도에 의해 타격을 받을지 어떤 집이 그렇지 않은지 알아내기 위해 그가 원격 제어 장치를 들고 있는 것으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지만 그들은 인간처럼 그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리모콘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명령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만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제와 지혜[7:39-9:08]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에 대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주가 그의 속성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보상이나 처벌을 위해 그가 사용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정 상황에서 중력이 작용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왜 한 곳에 비가 내리고 다른 곳에는 내리지 않았는지 묻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넘어질 때 왜 뼈가 부러지는지 에 대해 질문하지 않으며 , 왜 한 사람은 당뇨병이나 암에 걸리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선택하신 방식대로 세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력이나 세포 분열의 각 표현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혜는 세부 사항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을 작동하도록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행위보다 우주 체계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우주의 핵심이 아닌 정의[9:08-11: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 제도를 고안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항상 현명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욕기에 근거하여 그가 정의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우주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세력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의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도덕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은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는 정의보다 우주의 작용에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정의가 모든 것의 핵심이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그분의 지혜로 하나님은 우주가 하는 방식대로 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는 간섭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세상은 오직 그분의 지혜에 의해서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정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욕기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욕기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음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욕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25회 욕기의 세계
: 질서, 비질서, 무질서입니다. [11:09]